

경제

# 정치인 테마주 ‘묻지마 투자’ 금물

### 문재인·안철수·박근혜 관련주 등 두각 실체 없고 투기성 강해 실적 중심 접근해야

4·11 총선 등 정치시즌을 맞아 정치 관련 테마주가 지역 투자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서울대 교수와 관련된다고 알려진 종목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2012년 3월 광주·전남지역 주식거래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유가증권시장에서 우리들제약과 우리들생명과학의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코스닥시장에서는 안철수연구소와 바른손, 아가방컴퍼니 등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이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정치인 테마주들이다.

문재인 테마주로 불리는 우리들제약과 우리들생명과학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이 주요 주주로 있는 회사로 문재인 후보의 지지도가 급상승하면서 주가가 폭등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지난 2월부터 거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태다.

문 후보와 우리들생명그룹 모두 "서로 관련 없다"고 해명했지만 우리들제약은 최근 6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50% 이상 오르고 있고, 우리들생명과학도 지난 2월 주가가 5배 이상

뛰는 등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또 문 이사장과의 인맥 등을 이유로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된 바른손과 서희건설도 광주·전남지역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 2위와 8위를 기록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바른손과 서희건설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대표적인 안철수 테마주로 꼽히는 철수연구소는 지난해 9월부터 광주·전남지역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대금 1위 종목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7월 준중 1만9000원에 불과했던 안철수연구소 주가는 올 1월 초 장중 한때 16만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12만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박근혜 테마주로 불리는 EG와 아가방컴퍼니도 지역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 6위와 7위를 기록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동생 박지민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산화철 전문 업체인 EG는 박 위원장이 당 운영 전면에 나선 지난해 12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다. 유아용품 회사인 아가방컴퍼니는 박 위원장의 복지발전과 맞물리면서 박근혜 테마주가 됐다.

지역에서도 정치인 테마주가 부각되는 것은 올해 총선(4월)과 대선(12월)이 있고 유럽발 금융위기 등 불안 요인으로 기업들의 실적까지 저조해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투기 성향이 강한 자금이 정치인 테마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은 "정치 테마주는 실체가 없는 데다 투기적인 성향이 강하다"며 "정치 테마주에 무작정 투자하기보다는 실적이나 밸류에이션이 뒷받침되는 종목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빛’ 많은 대기기업 군살 뺀다

### 금감원, 주채무계열 34곳 공개...재무구조 평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에 부채를 많이 진 34개 그룹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채권은행은 이들 그룹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고서 취약한 곳과 약정을 맺어 '군살빼기'를 유도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34개 주채무계열(대기업그룹)에 대한 신용공여액은 267조2천억원으로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 1615조2000억원의 16.5%를 차지한다. 이중 상위 5대 계열에 대한 신용공여액은 113조원으로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의 7%, 전체 주채무계열 신용공여액의 42.3%다.

계열별로 보면 현대자동차 등 29개 계열은 신용공여액이 늘었으나 금호아시아나 등 5개 계열은 줄었다. 5개 계열 중엔 지난해 신용공여 순위 5위 LG와 4위 현대중공업이 자리를 바꿨다. 6대 이하 계열에선 대한통운을 인수한 CJ가 22위에서 18위로 올라섰다.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계열사는 총 3천562개로 2011년부터 186개 증가했다. 적극적으로 신성장 진흥으로 국내기업사보다는 국외기업사 편입이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별로는 CJ, 효성 등 23개 계열의 계열사 수가 증가했다.

연립뉴스



모양도 맛도 1등급. 지난달 직거래 협약을 맺은 조창현(왼쪽 두 번째) (주)광주신세계 대표와 정원실(세번째) 창평농협 조합장이 4일 지역 대표 농산물로 인정 받고 있는 창평 '새벽이슬' 딸기를 맛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신보 25~ 27일 '창업스쿨'

신용보증기금 호남본부는 예비창업자와 창업후 1년 이내 초기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25~27일까지 3일간 2012년 1차 '창업스쿨'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창업스쿨은 아이템 선정, 자금조달 및 세무관리, 마케팅 영업전략 등 창업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며, 올해는 특히 워크숍 형태의 참여

식 수업, 창업 성공·실패사례 분석 시간 등을 신설해 교육생들의 실전 감각 향상과 실질적인 창업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창업스쿨 수강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신보 호남본부(062-607-9184) 또는 신보 홈페이지(www.kodit.co.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해 신청 또는 문의하면 된다. /이은미기자 emlee@

# 본사 서울이전 우리가 현실로

## 광주권 지역경제 운동사 (14)

### 전남방직 서울이전 반대운동 ⑦

▲중앙집권적 상공행정 폐해 전남방직 본사의 서울이전계획이 알려지면서 광주시민들의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광주 시민들의 의식속에는 전남은 그저 광주에 있는 광주의 공장으로만 여기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갑자기 소유주가 따로 있고 그 소유

인 원면확보였다. ▲원면 예외성 부정비리 만연 자유당 정권시절인 1950년대의 섬유산업은 전남 대미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원면의 확보가 그 성과를 좌우했고 정부는 이 원면의 배정권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었다. 따라서 섬유업체는 정부의 원

### 전력·자금·원면 배정 등 모든행정 서울 집중

### 원면 이권 두고 비리 만연...확보 위해 불가피

주가 본사를 서울로 옮기려한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자 차츰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경제적 파장을 막고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이 전 반대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 회식계의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었다. 모든 거래나 상공행정이 중앙에 집중되고 있어 공장가동 이외에 광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우선 핵심인 전력이었지만 하더라도 상공부에서 주요 산업체에 대한 공급량을 결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주에서 아무런 현저한 한전지사에 매달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형편이었다. 무엇보다 전남방직이 서울 이전을 서두는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것은 바로 원자재

면배정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지방업체로서는 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사 서울이전은 중앙집권적 폐해와 원면확보의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물론이거니와 원면이 권력이었다. 원면을 예외한 정경유착과 부정비리가 만연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국방부 원면사건이다. 이 사건은 상공부가 FAO(유엔식량농업기구)의 지원금으로 1953년 11월부터 1954년 6월까지 48만달러어치의 막대한 민수용 원면을 수입했는데 자유당 정권이 이를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유용한 것이 그 사건 내용의 골자이다.

▲국방부 원면 사건 당시 국방부는 상공부에 압력을 가하여 군수용으로 전용할 수 없는 민수용 원면을 국방부가 지정한 7개 군수업체에 배정해 했고 또 한국은행과 상업은행에 압력을 가하여 이들 7개 업체에게 원면 인수가금 전액을 불법 융자해 줬다. 그러나 군군의 활동은 불법이나 방한복 생산 명목으로 7개 군수업체가 배정받은 원면은 국내에 도착되기도 전에 미리 전량이 암시장에 매각처분되었다. 당시의 환풍은 달랑당 1백80만 이었던데 원면은 알팔라 시세인 3백70만원의 환풍로 매각되어 막대한 환차익의 차이 정치자금으로 새어간 것이다. 이 사건은 3년에 걸쳐 수사자 진행되었으며 국회에서는 국정조사권이 발동되었지만 그 막대한 돈의 행방과 사건의 물통은 밝히지 못한채 국방부장관이 사임하는 선에서 종결되고 말았다. 그러나 FAO는 지원자금을 명목 이외에 불법전용했음을 지적, 우리 정부에 변상을 요구하는 등 국제관심을 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당시 섬유업체가 민수용 원면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직물시장이 침체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다.



위중 (연론인)

# 수도권 영업 강화...광주은행 조직개편

## 부행장에 송중욱

KJB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이 금융업무의 중요한 핵심인 IT(Idea Technology)업무의 효율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통해 IT지원부를 신설하고 임원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송중욱 부행장은 "이인사는 서울 및 수도권 영업 강화와 '친절한 은행, 상냥한 은행원'이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고객

을 섬기고 다가가기 위한 '리테일 마케팅'을 펼치기 위해 단행됐다. 한편 광주은행은 오는 5월 15일 시행 예정인 '전국금융거래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정보보안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고 업무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IT지원부 신설하고 임원급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www.jaUtour.com**  
**자유투어**  
광주지점 062)371-3757

**무안-북경 4일(화요일출발/5일(금요일출발))**  
북경 4일 369,000 원~  
북경 5일 399,000 원~

**무안-상해 4일(매주월,수요일출발)/5일(매주목,토요일출발)**  
상해,항주,소주 4일 379,000 원~  
상해,항주,황산 5일 579,000 원~  
상해,황산,삼청산 5일 619,000 원~  
상해,주가각,장가계 5일 949,000 원~

**광주출·도착** **푸켓 [라군빌라 (매주목요일)] 5일 869,000 원~**

**세부 4일/5일 799,000 원~**

**항공상품 제주도 3일 129,000 원~**

**동남아** **방콕 파타야 5일 249,000 원~**

**다낭/호이안/후에 5일/6일 429,000 원~**

**베트남/칸다미(앙코르왓) 6일 399,000 원~**

**세부+발마사지 4일/5일 299,000 원~**

**상가/배탕+조호바루 5일 599,000 원~**

**중국** **[5대음선포함/5성급호텔] 황산/상해/항주+취우천 5일 489,000 원부터**

**동해의 구채구/성도 5일/6일 399,000 원부터**

**장가계/원가계/천문산 5일/6일 569,000 원부터**

**유럽** **[BEST / 승출1위] 합스투트와 캄파제 유럽 6주 9월 129 원부터**

**러시아 북유럽(핀노스/덴) 12일 229 원부터**

**미국** **[캐나다 나를 볼렀다] 캐나다 항공 완전일주 8일 1,990,000 원부터**

**하와이 일주 5일/6일 999,000 원부터**

**일본** **[NS홈쇼핑 HTT] 후쿠오카 아미구시 특급로칸온천 4일 199,000 원부터**

**호주 뉴질랜드** **시드니 완전일주 6일 1,090,000 원부터**

**필리핀** **[특급일정] 국적기직항/9대특식/특급호텔 호주/뉴질랜드 북섬 8일 1,790,000 원~**

예/약/상/담 북구점 267-8587 상무점 652-2974 수완점 574-1300 동구점 227-8255 하남점 954-9700 목포점 061-284-1000 광양점 061-794-8804 전주점 063-284-6868